

캠프 그리브스 부지 역사공원화 순조

(DMZ 내 옛 미군기지)

군 대체시설 계획 승인- 내달 착공

DMZ(비무장지대) 일원에 있던 옛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의 역사공원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가 정부에 미군기지 활용방안을 제인한 지 7년여 만이다. 경기도는 인기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이곳에 역사공원을 조성, 인근 임진각 도라산 평화공원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주변관광지와 연계해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구상이다.

경기도는 캠프 그리브스 부지를 제공받는 대신 국방부에 주기로 한 군 대체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지난 20일 완료됐다고 다음 달 안으로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막사, 초소, 정비고, 창고, 훈련시설 등을 갖춘 25만9361㎡ 규모의 군 대체시설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국방부로부터 11만8714㎡ 규모의 캠프 그리브스 부지를 대신 받게 된다.

도는 다음 달 안으로 군 대체시설 조성에 착공, 오는 2020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캠프 그리브스 일원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을 방침이다. 이어 2021년부터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캠프 그리브스에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역사전시관, 병영·생태체험관, 휴양시설 등을 갖춘 역사공원을 건립해 천혜의 자연과 어우러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실시계획이 승인돼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다"며 "분단의 아픔과 역사,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곳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역사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군내면 DMZ 일원에 자리잡은 캠프 그리브스는 한국전쟁 이후 50여년간 주한미군기지로 활용되다가 2004년 8월 미군이 철수한 곳이다. 경기도는 2012년 4월 국방부에 '기지활용방안'을 제안했다.

도와 국방부는 캠프 그리브스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전격 합의하고, 2014년 6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캠프 그리브스 부지를 활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DMZ 인접 파주 미군기지 2021년 역사공원으로 첫삽

경기 파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의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그리브스에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2021년 본격화한다.

경기도는 캠프 그리브스 부지를 받는 대신 국방부에 제공하는 대체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이 지난 20일 승인됨에 따라 다음달 안에 대체시설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기존 부지에 병영·생태체험관, 역사전시관, 휴양시설 등을 갖춘 역사공원을 건립해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파주 근내면 배연리의 캠프 그리브스는 1953~2004년 미군이 주둔한 민통선 내에 유일한 반환 미군기지로, 비무장지대(DMZ)로부터 2km가량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인기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도는 인근 부지 25만 9361㎡에 378억원을 들여 막사, 초소, 정비고, 창고, 훈련시설 등을 갖춘 군 대체시설을 건립해 국방부에 제공하고 국방부로부터 11만 8714㎡의 캠프 그리브스 부지를 받아 115억원을 들여 역사공원을 조성한다. 군 대체시설을 다음달 착공해 내년 말 완료하면 기존 부지 내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2021년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역사공원이 조성되면 임진각, 도리산 평화공원, 제3땅굴, 도리전망대 등 주변 안보관광지와 연계해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분단의 아픔과 역사,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곳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역사공원을 조성해 국민들의 품에 돌려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파주 캠프 그리브스 전경.

경기도 제공

캠프그리브스 대체시설 승인완료 경기도 '역사공원 조성' 속도낸다

2014년 '기부대양어' 활용 합의
내달중에 軍대체시설 공사 첫삽
202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

경기도는 '캠프그리브스' 부지를 제공 받는 대신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한 '군 대체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완료되면서 내달 중 대체시설 조성공사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도가 추진 중인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파주시 군내면 DMZ 일원에 자리잡은 '캠프그리브스'는 한국전쟁 이후 50여년 간 주한미군기지로 활용되다가 지난 2004년 8월 미군이 철수한 곳이다.

도와 국방부는 '캠프그리브스'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전격 합의하고, 지난 2014년 6월 '기부대양어' 방식으로

'캠프그리브스' 부지를 활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기부대양어' 방식은 주로 군사시설 이전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공익사업자(경기도)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가(국방부)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기존 부지를 양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도는 막사, 초소, 정비고, 창고, 훈련시설 등을 갖춘 25만9천361㎡ 규모의 군 대체시설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국방부로부터 11만8천714㎡ 규모의 '캠프그리브스' 부지를 제공받게 된다.

도는 오는 10월 군 대체시설 조성에 착공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캠프그리브스 일원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은 뒤 오는 2021년부터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영기자 sij@kyeongin.com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 가속 '군 대체시설' 실시계획승인

'캠프그리브스'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캠프그리브스' 부지를 제공받는 대신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한 '군 대체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지난 20일 완료됨에 따라 다음달 안으로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2년 4월 경기도가 국방부에 '기지활용방안'을 제안한지 7년여만이다.

파주시 군내면 DMZ 일원에 자리잡은 '캠프그리브스'는 한국전쟁 이후 50여년 간 주한미군기지로 활용되다가 지난 2004

년 8월 미군이 철수한 곳으로, 인기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도와 국방부는 '캠프그리브스'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전격 합의하고, 지난 2014년 6월 '기부대양어' 방식으로 '캠프그리브스' 부지를 활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막사, 초소, 정비고, 창고, 훈련시설 등을 갖춘 25만9천361㎡ 규모의 군 대체시설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국방부로부터 11만8천714㎡ 규모의 '캠프그리브스' 부지를 제공받게 된다.

도는 다음달 안으로 군 대체시설 조성에 착공, 오는 2020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

해 캠프그리브스 일원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은 뒤 오는 2021년부터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캠프그리브스'에 병영·생태체험관, 역사전시관, 휴양시설 등을 갖춘 역사공원을 건립,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도는 '캠프그리브스'가 조성될 경우 임진각, 도라산 평화공원,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주변관광지와 연계,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선호기자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2021년 첫삽

DMZ 2km... 분단 현실 '생생'
군 대체시설 2020년 완료 목표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 기여 기대

변환 미군기지인 캠프 그리브스에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오는 2021년 본격에도 오른다.

경기도는 캠프 그리브스 부지를 받는 대신 국방부에 제공하는 대체시설 실시 계획이 지난 20일 승인, 다음달 안으로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2년 4월 도가 국방부에 '기지 활용방안'을 제안한지 7년여 만이다.

도는 기존 부지에 병영·생태체험관, 역사전시관, 휴양시설 등을 갖춘 역사공원을 건립해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파주 군내면 백연리의 캠프 그리브스는 1953~2004년 미군이 주둔한 민통선 내에 유일한 변환 미군기지로, DMZ로부터 2km가량 떨어진 곳에 있어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앞서 도와 국방부는 2014년 8월 기부대 양여 방식의 기존 부지 활용에 합의했다.

기부대 양여는 공익사업자(경기도)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가(국방부)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기존 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주로 군사시설 이전 사업에 적용된다.

도는 인근 부지 25만9천361㎡에 378억

원을 들여 막사, 초소, 정비고, 창고, 훈련시설 등을 갖춘 군 대체시설을 건립해 국방부에 제공하고 국방부로부터 11만8천714㎡의 캠프 그리브스 부지를 제공받아 115억원을 들여 역사공원을 조성한다.

군 대체시설을 10월에 착공해 2020년 말 완료하면 기존 부지 내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2021년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역사공원이 조성되면 임진각, 도라산 평화공원,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주변 안보 관광지와 연계해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실시계획이 승인돼 더욱 의미가 깊다. 분단의 아픔과 역사,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곳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역사공원을 조성, 국민의 꿈에 돌려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파주 역사공원, 평화 공간으로 조성하자

파주 민간인출입통제선(DMZ) 북쪽에 역사공원이 조성된다니 반갑다.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그리브스의 대체시설에 대한 승인으로 오는 2021년 첫 삼을 뜬다. 그동안 집경지라는 이유로 침체됐던 경기북부의 경제와 관광이 활성화될 전망이어서 더욱 반갑다. 경기도가 지난 2012년 4월 국방부에 기지 활용 방안을 제안한 지 7년여 만이다. 도는 다음 달 안에 대체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한다. 기존 부지에 병영·생태체험관과 역사전시관, 휴양시설 등을 갖춘 역사공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다.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그동안 분단으로 인해 경기북부가 잃은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경제·문화적 박탈감이 가장 크겠다. 이번엔 조성되는 공원이 그동안의 서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캠프 그리브스는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에 위치했다. 1953~2004년 미군이 주둔한 민통선 내에 유일한 반환 미군기지다. DMZ로부터 2km가량 떨어진 곳에 있어 분단의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이었다. 이 지역에 대해 경기도와 국방부는 지난 2014년

6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기존 부지 활용에 합의했다. 이 방식은 공익사업자인 경기도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기존 부지를 양여하는 것으로 주로 군사시설 이전 사업에 적용된다. 도의 계획은 이렇다. 인근 부지 25만9천361㎡에 378억 원을 투자해 막사와 초소, 정비고, 창고, 훈련시설 등을 갖춘 군 대체시설을 건립해 국방부에 제공한다.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11만8천714㎡의 캠프 그리브스 부지를 제공받아 115억 원을 들여 역사공원을 조성한다. 군 대체시설을 10월에 착공해 2020년 말 완료하고 나면 기존 부지 내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2021년부터 착수하게 된다. 도는 역사공원이 조성되면 임진각과 제3땅굴 등 주변 안보 관광지와의 연계해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제는 '관광활성화를 지역 경제와 어떻게 연계시키느냐'다. 다른 관광지처럼 쓰레기만 남는 곳으로 전락시키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지난 20일 실시계획이 승인돼 더욱 뜻깊다.

7년 대장정 끝에 얻은 이 곳이 경기북부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이라는 메시지가 살아 숨쉬는 현마당이 되기를 희망한다.

기호일보

DMZ내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 '속도'

도 "군 대체시설 내달 착공"

경기도는 '캠프 그리브스' 부지를 제공받는 대신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한 '군 대체시설'의 실시계획 승인이 지난 20일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2012년 4월 도가 국방부에 '기지 활용 방안'을 제안한 지 7년여 만으로, 캠프 그리브스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시 군내면 DMZ 일원의 캠프 그리브스는 한국전쟁 이후 50여년간 미군기지로 활용되다가 2004년 8월 미군이 철수한

곳으로,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도와 국방부는 캠프 그리브스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합의, 2014년 6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캠프 그리브스 부지를 활용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막사, 초소, 정비고, 창고, 훈련시설 등을 갖춘 25만9천361㎡ 규모의 군 대체시설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국방부로부터 11만8천714㎡ 규모의 캠프 그리브스 부지를 제공받게 된다.

도는 다음 달 군 대체시설 착공, 2020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캠프 그리브스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은 뒤 2021년부터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광섭 기자 ksp@